

유라시아 헤드라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발행 유라시아 주간 소식지 2010. 7.19



본 소식지는 한양대학교 HK 러시아·유라시아 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하여 매주 국가별로 요점과 관련 기사 링크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지입니다.

러시아 2010년말 리저브 기금 3000억 루블 선은 유지할 듯

부총리겸 재무장관인 알렉세이 쿠드린은 7월 12일 정부회의에서 2011년까지 리저브 기금 총액이 3,000억 루블을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일 현재 리저브 기금은 1,277조 루블이며 지난 두 달간 약간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재정으로 2월에는 3.2%, 3월에는 11.9%, 4월에는 23.4% 감소했었다. 금년 1월 1일 1,831조 루블이었던 리저브 기금은 금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유가가 높아 일부 리저브 기금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12, Kommersant\]](#)

러시아 연방보안국법 상원 통과

러시아 하원에서 찬성 354, 반대 96으로 통과되었던 러시아 연방보안국법이 7월 19일 러시아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현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역행하는' 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개인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공무 집행 중인 연방보안국 요원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벌금 혹은 15일간의 구류에 처하는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 법안은 테러와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일에 일조할 것으로 관측되나, 일부 인권 활동가와 야당의원들은 법안이 정부 반대론자들에게 위협일 수 있으며, 극렬한 항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었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19,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루카셴코, 러시아 언론 비난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 미디어의 자신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5일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EurAsEC(유라시아경제공동체) 회의에서 관세동맹 참가국인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로써 7월 6일부로 관세법이 발효되었다. 문제는 관세법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날인 7월 4일 NTV 채널에서 루카셴코의 독재를 비난하고 벨라루스의 현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대부>를 방송한 것이다. 이에 대해 루카셴코는 가스프롬에 의해 지배되는 매체인 NTV가 자신에 관한 허위적인 방송을 내보낸 이유는 실제로 러시아가 관세동맹을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을 도발하여 관세동맹 결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은 그러한 결렬의 원인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7월 12일 벨라루스 방송에는 그루지야 대통령 사카슈빌리가 직접 출연하여 크레믈린이 벨로루스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7월16일 루카셴코에 관한 다큐멘터리 <대부>의 후편마저 방영하였으며 러시아의 주요 신문 및 러시아의 영어 방송인 <러시아 투데이>에는 루카셴코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담는 기사와 방송이 연이어 등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루카셴코는 러시아 언론에 대해 "더러운 프로파간다"라 비난하였으며 이는 지난 6월의 가스 분쟁 이후 또 다시 양국 관계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19, Free Europe Radio Liberty\]](#)

유라시아 헤드라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발행 유라시아 주간 소식지 2010. 7.19



본 소식지는 한양대학교 HK 러시아·유라시아 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하여 매주 국가별로 요점과 관련 기사 링크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야누코비치 국민투표 제안 제동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Victor Yanukovich)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개헌 논의의 첫 단계에서 발목을 잡았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004년 합의된 대통령의 권한 억제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묻자는 야누코비치의 “지역당(Party of Regions)” 제의에 대해 공산당과 리트빈 블록(Lytvyn bloc) 등 야당의 거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논의가 9월로 연기되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외무부 장관과 국방 장관만을 지명할 수 있는데, 야누코비치는 국정 운영을 위해선 대통령 권한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10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몰도바, “소비에트 강점일” 제정 취소

몰도바 대통령 대행 미하이 김푸(Mihai Gimpu)는 최고 법원이 자신의 “소비에트 강점일” 제정 대통령령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이를 “정치적”이라며 비난했다. 김푸는 지난달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 치하의 루마니아 동부 지역이었던 현재 몰도바의 영토에 소비에트 군이 진입한 6월 28일을 “소비에트 강점일”로 공포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 김푸는 대통령령 제정에 공개적 반대를 표방해온 친러시아적 성향의 민주당 마리안 루푸(Marian Lupu)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 제정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역시 즉각 이를 우려하는 반대 성명을 냈었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12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캐서린 애쉬턴 EU집행위원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 바투미 회담

캐서린 애쉬턴(Catherine Ashton) EU외교안보 집행위원은 7월 15일 그루지야 바투미에서 사카쉬빌리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향후 EU와 그루지야 간, 나아가 EU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장기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장기적 협력의 틀에는 입국사증 면제 및 자유 무역 조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15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유라시아 헤드라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발행 유라시아 주간 소식지 2010. 7.19



본 소식지는 한양대학교 HK 러시아·유라시아 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하여 매주 국가별로 요점과 관련 기사 링크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지입니다.

아제르바이잔-터키 가스협정 여파 확산

EU 지원 에너지 프로젝트인 나부코와 ITGI, TAP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문호개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아제르바이잔-터키 가스협정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불가리아는 6월 11일 러시아의 부르가스-알렉산드로폴리스(Burgas-Alexandroupolis) 프로젝트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불가리아의 흑해 연안 항구로부터 그리스 영내 에게해 연안항으로 러시아와 카스피해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러시아는 불가리아의 이러한 조치를 미국과 EU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6월 17일에는 EU의 에너지 안보를 제고시켜줄 ITGI 가스관 프로젝트에 이탈리아와 그리스, 터키 등 3개국 가스회사들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08 issue of the CACI Analyst\]](#)

나고르노-카라바흐 무력충돌 불구 협상 계속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 점령지역인 마르다케르트 지역에서 6월 18일 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무장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측은 휴전 위반을 상호 비난했으나, 사상자가 아르메니아 지역 차일루 마을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측의 선공이었다는 아르메니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한다.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중재로 열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간의 3자회담 24시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로 더욱 심대하다.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다음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귀국했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 측이 메드베데프 대통령 및 친 아르메니아 민스크 그룹 협상단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유럽 연합, 미국, 이란 등의 노력으로 양측은 협상 계속을 천명했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08 issue of the CACI Analyst\]](#)

카자흐스탄, EU 추진 나부코 가스프로젝트 참여 의사 표명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7월 18일 나부코 가스프로젝트에 카자흐스탄이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EU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나부코에 반대한 적이 없는데, 문제는 유럽에서 나부코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18 RiaNovosti\]](#)

유라시아 헤드라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발행 유라시아 주간 소식지 2010. 7.19



본 소식지는 한양대학교 HK 러시아·유라시아 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하여 매주 국가별로 요점과 관련 기사 링크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지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사태 지원으로 카리모프 이미지 개선

지난 6월 키르기스 남부에서 키르기스계와 우즈베크계 간 민족분규 이후, 6월 중순까지 10만 여 명의 우즈베크계 난민들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우즈베크계로 탈출한 바 있다. 최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크계 대통령이 폭력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남 키르기스스탄 유혈사태의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7월 19일 현재, 우즈베크계 정부 관리들은 국경근처에 부상자 치료시설을 설치하고, 난민들을 우즈베크계 국내의 학교, 기숙사, 안디잔 역, 요양소, 친척집 등으로 피신시키고 있다. 해외 언론은 이러한 대응책이 '안디잔 사태' 이후 카리모프에 대한 대내외적 비난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15 EURASIANET\]](#)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수출 경로의 다각화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크계와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에 이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자국의 가스 수출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최근 베르디무하메도프(G. Berdimuhamedov)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 인도 (TAPI)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뉴델리를 방문했다. 또한 올해 초 가스 수출 증대를 위해 이란으로의 단거리 파이프라인이 개통되었고, 트랜스-카스피해 가스 파이프라인(TCGP)과 EU 남부 노선을 통한 유럽으로의 수출도 모색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08 issue of the CACI Analyst\]](#)

남부 키르기스스탄에서 당국이 우즈베크인들에게 인권유린 자행

키르기스스탄 남부 오쉬 지역에서 우즈베크인들과 키르기스인들간의 유혈 폭력 사태가 진정되고 나자 이제는 또 다른 공포가 밀려들고 있다. 남부 키르기스스탄의 우즈베크인들은 당국이 합당한 이유 없이 새벽녘에 우즈베크 남성들을 체포하고 있고,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몸값이 지불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쉬 지방의 우즈베크인 거주 지역 주민들은 키르기스 군과 경찰에 대항하여 자경단을 조직하기로 했다고 한다. 7월 15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종족 간 유혈 폭력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제조사단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조사단이 OSCE든 UN이든 현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믿는 현지인들은 거의 없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19 EURASIANET\]](#)

인도의 타지키스탄 아이니(Ayni) 공군 기지사용 교착 상태에 빠져

중앙아시아에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인도의 계획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인도는 지난 2004년에 타지키스탄의 아이니 공군 기지 사용 허가를 타지키스탄 정부로부터 허가받았으나 2010년 현재까지도 공군 기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 국방부는 2000년대 중반부에 이 기지의 활주로와 격납고를 보수하고 '미그 29기' 공격용 제트기를 비행대로 기지화하기로 타지키스탄 정부와 합의했다. 인도의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정부가 타지키스탄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 원문 보기 \[2010-07-09 EURASIANET\]](#)